

**금호텔레콤
위성통신사업 참여
미사 지분 10%확보**

금호텔레콤은 인공위성을 이용,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딧세이] 위성통신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8월 23일 미국 항공우주 전문회사 TRW사와 의향서를 체결했다.

금호측은 모두 2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오딧세이] 사업에 10% 가량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다음달중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오는 98년 서비스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오딧세이] 인공위성사업은 지구상공 1만3백54km 지점에 모두 12개의 이동위성을 띄워 동시에 3백만명이 개인휴대통신과 차량전화,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등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업체 참여는 금호가 처음이다.

이밖에 국제 인공위성통신사업으로는 [이리디움] [글로벌스타] [프로젝트21]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리디움에는 한국이동통신, 글로벌스타사업에는 현대전자와 데이콤, 프로젝트21에는

한국통신 삼성전자 신세기통신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기술분석 완료
보잉사등 X-33로켓**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보잉사의 공동연구팀은 X-33의 기술분석을 끝내고 최적 시험 사양으로 수직이착륙사양을 선정했다고 동 연구팀 홍보담당이 발표했다.

X-33은 NASA(미항공우주국)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원가절감, 항공기와 같은 운용성, 그리고 상업성 등을 갖춘 재사용 가능 발사용 로켓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립하려는 개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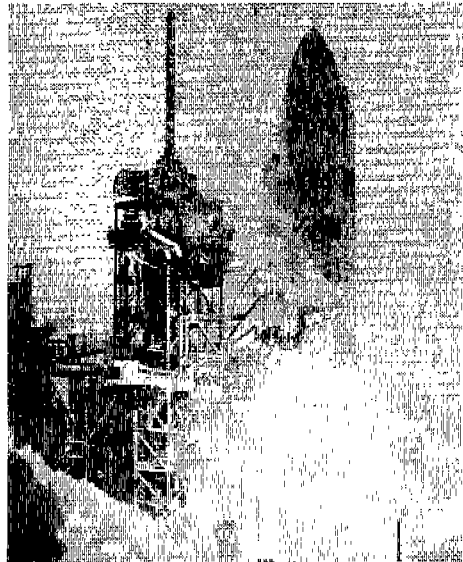
NASA는 금년초 맥도널 더글러스사와 보잉사의 공동연구팀에 대하여 X-33 개발에 따른 위와같은 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연구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계약은 13개월 간에 연구를 끝내고 1996년초에 기술 시험을 한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호,
무사히 기지에 안착**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7월 13일 상오 9시 41분에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호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했다. 원래 6월 8일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량부분이 발견되어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보수가 끝난 뒤에 발사하게되어 이같이 늦어졌다고 NASA홍보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호는 발사후 6시간 뒤에 데이터 중계 위성 G(TFRSOG)를 관성상단 스테이지에서 방출하는 등 실험을 마치고



디스커버리호 발사장면

7월 22일 오전 8시 조금 넘어 무사히 케네디 우주센터에 착륙했다고 한다.

탐사기 방출확인 목성행 위성 비행중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1시30분 목성을 향해 발사한 인공위성 갈레리오호가 목성을 향해 비행중 흑성탐사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목성은 태양계 최대의 흑성으로 지구로부터 약 7억4천만km 떨어져 있는데 탐사위성 갈레리오호는 6억6천km를 비행한 뒤 목성을 8천만km 앞두고 탐측기

를 방출한 것이라고 한다.

이 위성은 오는 12월 7일 목성의 대기권에 돌입하게 되어 있으며 탐사장치는 목성 대기권에서 좀더 자세한 탐사 자료를 얻게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재돌입시 비행시험 DC-X 성공리 종료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개발중인 재사용 가능 로켓의 시험 제작체인 DC-X호는 7월중에 미 육군 미사일 발사장에서 발사후 대기권 재돌입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든것이 순조로웠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비행은 총 2분4초로 로켓이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했을때에 생기는 회전운동의 실재를 관찰 하려는 것으로 무사히 성공리에 시험을 마쳤다고 한다.

DC-X는 매초 240피트의 최대 상승율로 8200까지 올라간 뒤 지평선을 향하여 10도 아래로 회전하고 130도를 다시 회전하여 착륙자세를 취하여 P&W사의 엔진 4기를 브레이크로 작용시켜 밀부분부터 착지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 실험후 DC-X는 다시 개량하여 1996년에 시험을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기다립니다

월간 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전달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 협회 및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집자에게(전화: 761-1104 윤병한)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정기구독안내

본 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전화: 761-1101, 담당 남주현
FAX: 761-1175)